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12. 26.(목) 11:00,  
(지면) 2024. 12. 27.(금) 조간

배포 2024. 12. 26.(목) 06:00

## 연안해역 해상교통정보를 한눈에 본다

- 해수부, 연안선박 통항 밀집도를 비롯한 주요 교통로 정보 공개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12월 27일(금)부터 우리나라 해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연안해역 통항 밀집도와 선박의 주요 교통로, 항행 안전정보 등 해상교통망 정보를 제공한다.

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‘해상교통망 정보 구축 사업’은 선박 통항이 밀집된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고, 해상 풍력사업 및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교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해상교통망 정보는 5년 8개월간 수집한 선박 관련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일정 크기(1km x 1km)로 격자화(약 41만 개)하여 개별 격자마다 교통 밀집도를 표출하고, 이를 연결하여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해상교통로를 보여준다.

이번에 제공되는 해상교통망 정보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(GICOMS, [www.gicoms.go.kr](http://www.gicoms.go.kr))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(MTIS\*, [mtis.komsa.or.kr](http://mtis.komsa.or.kr))에서 이용할 수 있다. 선박운항자나 해양개발 사업자 등은 해상교통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박의 안전항해는 물론 해양개발 사업의 입지 선정 시 선박 통행의 지장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\* **M**aritime **T**ransportation **S**afety **I**nformation **S**ystem: 해상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 수집·분석·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해상교통망 정보는 선박운항자, 해양개발 사업자 등 해역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로써 해양활동의 안전성과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해상교통망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정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디지털 해상교통관리 체계를 제공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해사안전국   | 책임자 | 과 장 | 이창용 (044-200-5810) |
|       | 해사안전정책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희곤 (044-200-5820) |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